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19(土)	20(日)
 차차 흐려짐 -5/5℃	 비 또는 눈 1/6℃

News

- 속도 내는 BBK 특검 ②
- 대덕 참숯 산마늘 공동체 ③
- 박지성·이영표 동시 출격 ⑧

Books

- 장편소설 출간 채희운 교수 ⑭

Entertainment



- 여장 남자 개그 인기몰이 ⑧
- 여배우들의 무한도전 ⑨

Wellbeing

- 식품 탐구-솔잎 ⑬



유망직업 전망 56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www.namju.ac.kr

새로운 미래를 향해
전남과학대학
www.jnsc.ac.kr

■ 대한조선 '여성 골리앗 크레인 운전자' 손진화 반장



손진화 반장이 지난 16일, 대한조선 해남조선소 제1도크에 설치된 골리앗 크레인 조종석에 앉아 작업하고 있다. <대한조선 제공>

지상 100m 높이의 '하늘 작업실' 손놀림 한번으로 600t 들어 옮겨

지상 100m 높이의 크레인에서 근무하는 그녀의 첫 인상은 평범한 주부, 가냘픈 여성의 모습이었다.
“무섭다구요? 안방 보다 편안해요. 45층에 있는, 화장실 딸린 미니 원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 유일의 여성 운전자

대한조선 해남조선소에서 국내 유일의 여성 골리앗 크레인 운전자로 근무하고 있는 손진화(41) 반장. 13년간의 전업주부 생활을 접고 새로운 인생을 찾아 공사현장으로 진출한 그녀는 “남자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골리앗 크레인을 조종한다는 것이 무척이나 행복하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지상 100m 높이에 매달린 골리앗 크레인 캐빈(조종실)에서, 손놀림 한번으로 최대 600t에 이르는 선박조립용 부품(블록)을 들어올린다. 손 반장이 가냘픈

손놀림으로 조종하는 크레인은 최고 높이가 무려 120m로, 45층 건물과 맞먹는다.

지난 16일, 선박조립 현장에서 만난 손 반장은 “100m 상공에 있는 크레인 조종실이 무섭지 않느냐”는 질문에 “솔직히 처음엔 좀 무서웠는데 지금은 높이를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100m 상공에서 내려다보는 바다는 정말 환상적”이라고 한숨 더 뺐다.
손 반장은 “수십~수백만톤에 이르는 선박 건조작업에는 여성의 정교함과 섬세함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골리앗” 운전 6개월째인 손 반장은 요즘 17만 500t급 벌크선을 만드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고교 2년 아들과 고교 1년 딸을 두고 있는 그녀는 지난 90년 결혼 이후 전업주부로 지내다 2002년 크레인과 인연을 맺었다. 자신만의 일을 찾고 싶었던 그녀는 고교 3년 끝에 목포중앙직업전문학교 항만장비 정비과에 입학했다. 목포항에서 크레인 기

사로 일하는 남편의 조인이 큰 힘이 됐다.

2003년 2월 골리앗 크레인을 조종할 수 있는 전정크레인 조종사 자격증을 딴 그녀는 2005년엔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에서 제강공장 크레인을 조종하며 본격적인 경력을 쌓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4월 대한조선이 해남에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세운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신안군 비금면이 고향인 그녀는 대한조선에 입사하면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한조선을 찾아가 무작정 이력서를 냈다. “여성은 골리

세계 최대 선박 만드는게 꿈

앗을 조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차례 입사를 거부한 인사담당자도, ‘남성만의 영역’에 실력으로 도전한 그녀의 열정을 꺾지는 못했다. 그녀는 결국 지난해 7월 말 대한조선에 채용되는 기쁨을 맛봤다.

손 반장은 “여자에 대한 편견이 없는 대한조선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고, 남들보다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라면서 “대한조선에서 안전사고 없이 세계 최대의 선박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제43회 광주일보 3월 1일 광주광역시체육회 후원

3·1절 전국마라톤대회

http://marathon.kwangju.co.kr ☎ 062-220-0541

타르 피해 영광·무안·신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18일 충남 태안 앞바다의 기름 유출 사고로 타르 덩어리가 유입돼 김 양식장 등에 피해를 입은 영광, 무안, 신안 등 3개 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관련기사 2면>

이로써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은 먼저 선포된 충남 지역 6곳을 포함, 9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특별재난지역은 행정·금융·의료 활동 비용이 국고에서 지원되며 피해주민과 관련업종 종사자들에게도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 피해지역 주민 생계

지원을 위해 긴급 생계비 300억원과 방제를 위한 특별교부세 30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로 타르 덩어리가 전남 서해안까지 흘러 내려오는 바람에 1만여 어가·2만2천200ha의 수산피해와 118km의 연안 피해를 입었다. 전남도는 연인원 6만여 명을 동원해 이날 현재까지 1천500여t의 타르 덩어리를 수거했으나 김·어패류 양식장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김주정기자 jjnnews@kwangju.co.kr

“호남운하 민자로 변경”

이명박 당선인, 민주 최인기 원내대표에 밝혀

사업비 축소 시비 우려

이명박 당선인이 호남과 충청운하를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아닌 민자사업으로 변경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여의도 민주당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인기 원내대표가 호남운하 사업의 조기추진을 요청하자 “민자로 하겠다고 제안을 하려는 사람이 있어서 아무튼 빨리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남도가 추산하고 있는 호남운하 영산강 구간은 직접 건설비 1조3천900억원 외에 퇴적오니(汚泥) 준설 및 자연친화 사업비 등에 수조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있어, 민자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사업축소 시비가 예상된다.

이 당선인은 당초 경우유는 100%민자사업으로 추진하되, 호남과 충청운하는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2조5천억원의 ‘나눠돈’을 들여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추부길 당선인 정책기획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호남운하와 충청운하는 원래 재정사업으로 공약이 되어 있었으나, 최근 다양한 검토 결과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돼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측은 J프로젝트, 광주첨단산업

단지 R&D특구 지정, 호남 남중부권(순천·여수·광양) 자유경제지역 지정,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육성,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유치 등 호남지역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호남운하도 충분히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 정책기획장은 그러나 민자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BTO(건설-이전-운영)로 할 것인지, BTL(건설-이전-임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해 추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부대사업 허용이나 국가재정으로 손실을 보전해 민간의 운영수입을 확정해주는 BTL 방식에 대한 국민여론이 비우호적인 것을 감안하면, BTO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우유하(BTO 방식)와 함께 호남, 충청운하 등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의 남쪽 3대 운하가 모두 민간사업제안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선인측 관계자는 “일부 해외 투자자들이 경우유하뿐 아니라 호남과 충청운하에 대한 투자를 검토중”이라고 소개했다.

인수위는 경우유하에는 14조~16조원, 목포-광주의 호남운하에는 1조2천억원, 금강하구~대전의 충청운하에는 1조3천억원 등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Snow Crush Ice

LANEIGE